

민주당, 공천 리스크 차단 '문 단속'

문희상 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당 차원 우려 전달 공관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송병기·황운하 '계속 심사' 판단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세습 공천'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일찍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시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부위원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 일단 당의 우려, 국민의 정서를 (문희상) 의장과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며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결단을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국민의 정서와 당이 이 문제를 매우 심도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문 부위원장은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선언해 '세습 공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대변인의 경우 투기 논란이 있었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각하고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 현장조사 소위원회는 김 전 대변인의 소명 내용을 확인한 뒤 오는 28일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검증위가 적격 후보라 판단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

고받고 11월 민주당에 복귀했다. 총선에 출마할 경우 '젠더'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당의 부담 요소다.

검증위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 판단을 내렸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권역별 중진 의원 등의 이름이 담긴 소위 미확인 살생부 2차 버전이 다시 한번 정치권 안팎에 나돌았다. 공관위 소속 한 의원은 "살생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영터러 내용"이라며 "(대상자가 누구인지) 공관위 위원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상권 르네상스 전국 확대"

민생 공약 패키지 발표...지역 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같은 민생 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 패키지를 선보였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 7만5000개가 그 대상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전 특별자금 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정도 소각하는 한편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62개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박광온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위 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설훈 의원 등이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종로 출마 제안 긍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총선 입후보자 교육 연수가 진행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 4·15 총선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대표 제안을) 설마 거부하겠습니까"라고 사실상 수락의 뜻을 나타냈다. 이 전 총리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 당원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총선을 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이후에 2명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역·직능 대표자 등 다수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홍기표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구성이 빠르면 설 이후에 바로 진행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역시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며 "상임 선대위원장이라 설마 거부하겠습니까"라고 사실상 수락의 뜻을 나타냈다. 이 전 총리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석 복귀' 지역민 관심 집중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방송 나서...출마 가능성 거론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호남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계 복귀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 민주당 총선 정강정책 연설방송 주자로 나서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와 함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임 전 실장의 총선 출마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나서면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22일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임 전 실장

에 대해 "제가 당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임 전 실장이 정강정책 연설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정당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 않나 싶다"며 "(임 전 실장은) 정치를 꼭 해왔기 때문에 정당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총선 출마를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임 전 실장과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임 전 실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발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임 전 실장이 전날 민주당 정강·정책연설을 한 것 대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좋겠다"고 밝히,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 민심도 호남의 차세대 주자인 임 전 실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의 전면적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임 전 실장이 국회에 진출, 호남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군소 3당 "통합 필요"

4·15 총선을 앞두고 호남을 뿌리로 하는 소수 야당들의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지도부가 22일 한 목소리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평화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동형 선거제 긴급토론회'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등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보수정당은 안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현정부, 능력·민주주의·공정 3無"

어제 경실련 방문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능력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공정이 없는 '3무(無)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현동 부동산건설회원부장을 만나 면담하고 "세 가지 모두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면담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 전 의원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불로소득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땅의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안 전 의원은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다. 안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이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행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대해서는 "우선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고민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점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